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이화래, 편집인 : 최진웅
 대표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김광수·김성배·김학진·류영렬·배의영·
 이창규·임상준·Hong Sok(Brian) Kim)

제20회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시상식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시상식

2012학년도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학술상·교육상 시상식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이진제 교수 학술상: 한재용 교수 교육상: 이정재 교수



■ 2012년 11월 13일 오전 11시부터 무궁화홀에서 (재)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0회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제12회 학술상 및 제10회 교육상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수상자 선정위원회(위원장, 박승우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올해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에 이진제 산림과학부 교수, 학술상에 한재용 농생명공학부 교수, 교육상에 이정재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를 선정하였다.

이진제 교수는 목재 내부의 부후 등 결함을 탐지하는 비파괴검사 기술을 개발하였고, 해당 기술을 통해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농생대의 숙원사업이었던 관악캠페스트의 이전과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조성 등 농생대의 연구 및 발전에 공헌한 바 있다. 학술상을 수상한 한재용 교수는 새로운 융합연구 관점에서 조류 형질전환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시물질 개발을 적용한 연구 성과를, 교육상을 수상한 이정재 교수는 법학대학 대학원 과정의 「농업법연구」를 개설하여 농업·공학·인문·사회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후진 양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에는 변창구 교육부총장, 시상기금 출연자인 한인규 명예 교수, 정윤환 농생대 동창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인원 교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로 선임



■ 서울대학교는 이인원 교수(농생명공학부)를 임기 2년(2012.12.28.~2014.12.27.)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사회는 총장의 선임, 대학운영계획, 예산 및 결산, 대학 또는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총장을 포함하여 15인의 학내·외 이사로 구성된다. 이인원 교수는 이준규(자연대), 박명규(사회대), 박용태(공대) 교수와 같이 학내 4명의 선임직 이사에 선임되었으며, 앞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성공적 안착과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원 교수는 1986년 서울대 농생대에 부임하여, 서울대학교 기획부처장,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대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10~11면_기금출연

6~8면_Interview
 12면_농생대 사람들

제19회 AAACU Biennial Convention 개최



■ 10월 11일 호암교수회관에서 「Shaping the Agriculture University for 2020 and Beyond: Challenges, Prospects, Directions」란 주제로 제19차 아쿠 심포지엄 행사(19th AAACU Biennial Convention)가 열렸다. AAACU(Asi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Colleges and Universities)는 1972년에 설립되어 농업, 교육, 연구를 통해 인간의 복지 향상을 주된 비전으로 하는 아시아의 농업 대학간의 네트워크이다. 이번 행사는 AAACU와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였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서울대학교의 공동 후원 하에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이학래 AAACU 회장과 이사회가 모여 '11년 마닐라 상임이사회의 회의록 낭독 및 회장 보고와 재무 보고가 있었다. 둘째 날, 주요아시아 5개국 농학계 대학 학장 및 관계자 12명과 국내 농학계 대학 학장 및 우리대학 교수 80여 명이 참석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학래 AAACU 회장의 환영사와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이돈구 산림청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농학계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과 시사점 △21세기 농업대학, 농업연구의 비전 △기업으로서 농업 등 미래 농업의 비전과 농과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셋째 날, 총회에서 20회 AAACU 심포지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태국의 Kasetsart University의 Sombat Chinawong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오후에는 외국인 참석자와 함께 수원의 농촌진흥청과 창업보육센터를 견학하면서 한국의 농업발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외국에서 온 회원들을 위해 덕수궁 및 청계천 거리를 체험하는 서울 시내 투어를 진행하였다.

중국 절강성농업과학원 및 남경농업대학과 MOU체결

■ 우리 대학은 10월 18일 중국 절강성농업과학원(Zhejiang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과 19일에는 남경농업대학교(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와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학래 학장과 각 대학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학 간 상호 발전적 국제 공동 연구의 추진과 함께 학술적 교류 협력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절강성 농업과학원은 중국 농업의 중심인 절강성 항주에 위치한 100년 역사의 비영리 농업종합연구기관이고, 남경농업대학은 중국의 국립 종합대학으로서 농학 분야 경쟁력이 중국 내 2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대학이다.



그리스 아테네농업대학과 MOU체결

■ 우리 대학은 그리스 아테네 농업대학(Agricultural University of Athens)와 10월 1일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학래 학장과 Kostas Fegeros 아테네 농업대학교 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대학은 학술 및 학생교환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실질적인 교류 방안과 공통관심분야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ROUNDTABLE 행사 개최

■ 우리 대학은 11월 13일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목련홀)에서 상록농업생명과학 연구대상 20주년 기념 ROUNDTABLE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래 학장과 상록연구대상을 제정한 한인규 명예 교수를 비롯하여 그동안 상록연구대상을 수상한 명예 교수 10명과 ROUNDTABLE 보고서를 집필한 재직 교수 15명이 참석하였고, 「교육, 연구, 부속기관,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분야」로 나누어 「미래 농학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방향」이란 주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농생대캠퍼스 수원-관악 이전에 따른 변화

■ 들어가며

지난 제55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세 선거 운동본부 모두에 농생대 재학생들이 후보로 속해 있었다. 이것은 농생대 학생들의 교내 활약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실례이다. 농생대 캠퍼스가 관악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농생대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사실 농생대의 캠퍼스 이전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단순히 물리적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다. 따라서 이번 기획기사에서는, 농생대 캠퍼스 이전을 주제로 하여 그 배경, 과정, 결과 등을 살펴 보면서 농생대 이전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농생대 관악 이전에 대한 논의의 역사

수원 캠퍼스 시절의 농생대는 농장, 목장, 수목원을 바로 곁에 두어 우수한 실습 환경과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낙후된 건물과 인근 수원 비행장의 소음은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한 예로 서울대학교 총장이 수원 캠퍼스 연설 도중에 수원 비행장에서 발생한 연속적 소음으로 행사 진행을 방해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농생대의 관악 이전 논의를 야기한 큰 사건이었다.

■ 이전의 구체적 과정

농생대의 수원에서 관악으로 이전은 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안 중 하나였다. 1987년 박봉식 총장 재직 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농수의학 분야 교육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캠퍼스 관악이전 종합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의대, 간 호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을 관악으로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시 농생대 학장과 교수진들의 반대로 결렬되었다. 그러나 점점 학제 간 교류와 융합이 불가피해지는 흐름과, 관악의 학생편의시설(중앙도서관, 문화관 등)의 이용 제한, 낙후된 연구 시설과 수원비행장의 소음 등의 문제로 농생대의 관악 이전 요구는 계속되어 왔다. 농생대의 젊은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주니어 교수회'와 농생대 학생회 등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학생회는 교수들에게 전면 관악수업을 요구하며 92년 9월 21일부

터 11월 17일까지 두 달 이상 캠페인을 벌인 바 있으며, 당시 3당의 대통령 후보를 관악으로 초청하여 농생대 이전 종합화의 당위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농생대의 관악 이전은 1990년대부터 큰 진척이 있었다. 1993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생대 이전이 탄력받기 시작했고, 1996년에는 차량계 일대 부지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때 1997년 이전 후보지를 캠퍼스 후문 국수봉 일원(현재 기숙사 맞은 편)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관악구청과의 건축협회에서 산림훼손을 우려하여 위치변경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이를 수용하여 1999년 이기준 총장때 현재 위치(전 자연대 운동장)로 부지가 최종 결정되어, 2000년 2월 관악구청과의 협의를 완료, 당해 3월에 착공, 3년 4개월 만에 완공하여 2003년 9월 23일 준공식을 가졌다.

■ 이전 후 농생대의 변화

교수진과 재학생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농생대 이전 이후, 농생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사실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먼저 공간 문제를 보면, 단독으로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던 환경에서, 보다 좁은 공간으로 이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 자치공간과 기숙사 배정 등 공간 활용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한 수원 캠퍼스의 장점이었던 이론-실습 연계 수업이 관악에서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관악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장점은 이를 상쇄할 만큼 큰 의미를 가졌다. 농생대 관악 이전이 확정되면서 학생들의 합격 후 등록률이 상승하였고, 재학생들의 수업 선택권 및 타 학생들과의 교류, 동아리 활동의 범위 등을 확대시켰다. 학제 간 융합이 활발해져 글로벌 환경경영학(전공주임 산림과학부 윤여창 교수)등 농생대 주도의 연합전공 개설 또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 기존 수원 상록캠퍼스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의 해소와 함께 여러 혁신적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 맺음말

이처럼 농생대의 캠퍼스 이전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쉽지 않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에 비록 단점이라 지적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 또한 캠퍼스 이전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부분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농생대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활약상은 우리 농생대 발전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



수원캠퍼스 당시의 행정본관



현재의 관악캠퍼스 전경



하반기 교수학사협의회 개최

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학사협의회가 12월 11일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학래 학장 및 80여 명의 교수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농생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부서별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부속기관 보고에서 조성인 원장(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이 연구원과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의 진행 상황을, 이우신 임장(학술팀)이 서울대 소유 남부학술림의 무상양도 진행 현황에 관한 보고를 한 후에, 참석 교수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허성도 교수(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가 '우리 역사 다시 보기'란 주제로 특강을 하여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교수학사협의회는 농생대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1년에 두 번 개최된다.



외국인 학생 및 교수 초청행사의 밤

농생대에는 외국인 교수 5명과 외국인 재학생 및 연구원 10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장차 각국에서 활약하며 농생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이들에게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환영 행사가 12월 3일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농생대 소개, 각국의 홍보영상 상영, 외국인 학생 공연, 한국홍보영상, 한국 전통음악 연주 등 다양한 순서가 이어졌다. 외국인 학생 공연에서 방글라데시 Md. Babul Akter와 인도네시아의 Widawati Emila이 각각 1, 2등을 하였다.



장학증서 수여식

2012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10월 8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각 학과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성적우수장학금은 이번 학기 총 16명의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수여식에는 이학래 학장 및 농생대 교수진과 학부모가 함께 참석하여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장학금 수혜의 기쁨을 나눴다. 9월 18일 진행된 나형주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이학래 학장 및 집행부 교수와 나형주 학생 가족 4명이 참석하여, 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되었다.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국제심포지엄 개최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소장 식물생산과학부 이석하 교수)는 10월 29일 충남대학교에서 'Translational Genomics for Molecular Breeding' 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차세대유전체 정보 및 새로운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최신 분자유종 기술에 대해 논의하였고, 식물육종 분야에 있어서 포스트 게놈믹스 시대에 걸맞은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2012 Agricultural Biotechnology 심포지엄 개최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소장 농생명공학부 유상렬 교수) 주관으로 SPC 농생명과학연구동에서 '2012 Agricultural Biotechnology Symposium' 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일본 Tsukuba 대학교의 Mitsutoshi Nakajima 교수, 미국 Hawaii 대학교의 Soojin Jun 교수 등 국내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Convergence of Nanotechnology for Food Science' 라는 주제로 식품 기능성 및 안전성을 위한 나노-바이오 융합기술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연구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



수목원의 가을걷이

수목원에서는 '2012년 지역 아동을 위한 가을 숲 교실' 행사가 10월 13일과 11월 3일 1·2차에 걸쳐 수원 수목원과 관악 수목원에서 열렸다. 1차 행사는 수원 수목원에서 수원시 거주 40명의 기초생활수급가족과 보호시설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2차에서는 관악 수목원에서 안양시 거주 대상 어린이들과 함께 가을걷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가을걷이는 나눔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가을 숲의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된 행사이다.

CALS 농생명산업특강

박현출 (농촌진흥청장)

박현출 농촌진흥청장이 9월 25일 '청년이어 농업을 디자인하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박 청장은 이날 "농업이 미래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농업이 미래 소득 창출의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훈 (코린도 그룹 상무이사)

김 훈 코린도 그룹 상무이사가 10월 9일 '해외의 자원조성이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힘으로 꼬나무를 심자' 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날 강연에서 김 이사는 "해외에 진출하려는 한국인의 왕성한 의욕은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해외의 자원조성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두 (동양물산기업(주) 부회장)

동양물산기업 윤여두 부회장은 11월 13일 '한반도 평화와 농업의 협력 방안' 이란 주제로 남과 북의 농업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진행하였다. 윤 부회장은 "남쪽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북측과 양돈 사업을 함께 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북은 분뇨를 통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고 남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냉동육(매년 50만 톤 수준) 대신 북에서 생산한 값싸고 싱싱한 생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전달했다.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

서경덕(한국홍보전문가, 성신여대 교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월 18일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서 교수는 문화관광스포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독도문화운동'을 전개해온 본인의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국가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어떻게 갖추고 키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성신여대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서 교수는 독립기념관 명예 홍보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자문위원, 아리랑국제방송 전략기획위원, 국가브랜드위원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이 있다. 서 교수는 또 MBC '무한도전' 팀과 함께 전주의 대표적 음식인 비빔밥을 뉴욕시민들에게 홍보하여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양윤호(영화감독)

양윤호 감독은 11월 21일 "Leader, 영화와 열정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끊임없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연출자로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번 특강은 강연 문화기업 굿마이크의 지식서비스 일환으로, 방송인 표영호의 양윤호 감독에 대한 열정적인 구애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표영호는 "양 감독님의 열정과 창의적 사고, 끊임없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힘에 존경심을 느꼈다"며 "평소 양 감독님의 강연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다 이번에 서울대와 협의 후 거듭된 섭외 끝에 양 감독님을 강단에 초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이리스 감독으로 유명한 양윤호는 현재 드라마 '도시정벌'의 연출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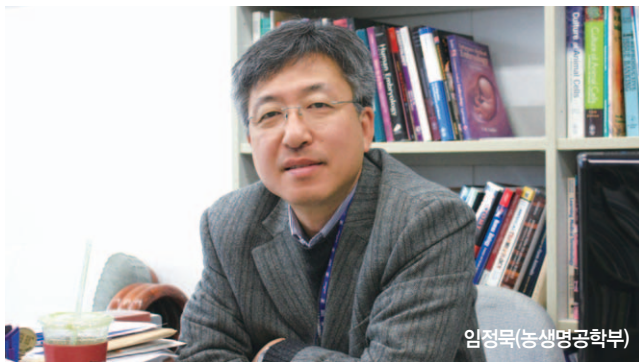
제1회 REDD+ 이행능력 개발 국제워크숍

■ 서울대학교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문가를 교육하는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UNDP(국제연합 개발계획)와 서울대학교 아시아에너지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주관하고 윤여창 교수(산림과학부)의 책임 하에 추진되는 본 워크숍은 최근 UN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체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방출량 감축)의 이행을 준비하는 개발도상국의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UNDP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남남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도국의 REDD+ 능력배양사업으로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미얀마, 말레이시아, 중국 등 6개국의 산림전문가와 교수, 비정부기구(NGO)리더, 학생 등이 참가하였다.

21세기, 첨단시설로 거듭날 평창 목장을 방문하다.

수원에 있는 농장과 함께 수원 목장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의미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갈수록 첨단화되어 가는 축산업 분야에서 현재 수원 목장의 낙후된 시설로는 더 이상 좋은 연구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원 목장이 넓은 초지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첨단시설을 갖춘 평창으로 조만간 이전 될 예정인데, 우리 농생대 기자단은 수원 목장의 평창 이전이 어떠한 변화와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탐방지로 평창 목장을 선정하게 되었다.

목장장 임정묵 교수와의 인터뷰



임정묵(농생명공학부)

먼저 평창 탐방에 앞서 현재 목장장인 임정묵 교수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임정묵 교수는 현재 평창 목장은 수원 목장에 비해 시설 뿐 아니라 규모면에서 월등하게 커졌기 때문에 목장 이전 후에는 예산 규모, 초지 면적, 양육 가축수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한다. “수원에 있을 당시 연간 예산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비해, 평창 이전 시 약 40억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지면적 및 가축수도 월등히 늘어났는데, 수원에서는 초지 면적 3만평, 소 30~40마리, 닭 5000마리 정도였으나, 평창에서는 초지 약 23만평, 소 500마리 이상, 닭 약 5만 마리 이상의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평, 메추리 등 가축도 키울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전 계획이 100% 완료된 것은 아니다. 건축물은 90% 이상 완료되었지만, 상하수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 초지가 조성되지 않았으며, 이 지역이 청정지역이다 보니 돼지를 키울 수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년 봄에는 상하수도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내년부터 가축을 조금씩 이전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양돈시설 또한 경기도 및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전할 예정이라고 한다.

평창 목장 시설 탐방

현장을 답사해보니 임 교수의 말대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중 우리가 처음 맞이한 시설은 자동차와 사람을 소독하는 시설이었다. 이는 외부에서 혹시 들어올지 모를 구제역 및 다른 병원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아직은 상하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가동되지는 않지만, 조만간 가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산란계·육계·육추기·중추기 등 닭의 이용용도 및 나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 관리하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일부 계사에서는 야외 방목장을 두어 가축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차이로 좁은 지역과 넓은 지역에서 자랐을 때 성장량 차이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한다.

계사를 지나 다음으로 간 곳은 한우 및 젖소 목장이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모든 소의 목에 전자 칩을 설치해두어 각 소마다 얼마나 체중이 증가하는지, 어떠한 소가 잘 자라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젖소의 경우 레이저를 이용하여 우유를 채취하는 작업 또한 전자화하여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둘러본 곳은 소의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수거하여 퇴비를 만드는 기계가 있는 시설이었다. 이 시설은 오랫동안 산소가 마르지 않게 수분을 제거하여 퇴비를 만들어 가는 시설로, 분뇨에 의한 오염 방지 뿐 아니라 초지를 키우는 데 좋은 퇴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탐방 후 느낀 점

목장이 아직은 완벽하게 시험 운영되지 않아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대규모 목장단지 및 첨단시설을 견학하면서 계속 발전해나갈 축산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기 김병탁



평창 목장 조감도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사육시설

청아랑영농조합법인 대표 임성혁(농학·89)동문을 만나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자’

서울대학교 농학과 출신의 임성혁 동문(농학 89)은 청아랑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경기도 대표 농업전문경영인이다. “청아랑”은 버섯전문 브랜드로써 푸를 청(靑), 새싹 아(芽), 마을 랑(榔) 즉 푸른 새싹 마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임성혁 동문은 2000년 ‘맛타리’란 새로운 버섯 브랜드를 개발한 이후 한 해 매출 8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청아랑을 경기도 대표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인공이다. 왜 농업



관련 일을 시작했다는 질문에 그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하였다고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나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 있으며 농업 분야에는 이러한 기회가 많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버섯을 키우고 어떤 맛과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인 ‘스토리(Story)’를 고객에게 전달한 것이 핵심”이라며 “맛타리처럼 단순한 느타리가 아니라 ‘맛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화하면 농업도 분명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부터는 미국에도 맛타리를 비롯해 표고·양송이 등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또 앞으로 호박·토마토·파프리카 등의 채소류도 생산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요즘 볼고 있는 귀농 열풍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농심(農心)이란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결국 인간의 욕구가 향하는 곳에 미래의 부(富)가 있다는 점에서 농업은 도전해 볼 만한 분야”라고 말했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

임성혁 동문은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학창시절 부모를 돕기 위해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농사일로 보내야 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늘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보면서 농업도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후 1989년 그러한 생각을 이루기 위해 서울대 농학과에 진학했다. 졸업한 이후 ‘동부한농’이라는 농자재 기업에 입사해서 마

케팅 기획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당시 농림부에서 내려온 ‘농림사업지침서’ 분석을 담당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지침서를 통해 그는 버섯재배 분야 사업자에게 정부가 2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버섯은 일반 농업과 달리 기술·자본 집약적 상품이고, 재배 기술의 장벽도 있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성혁 동문의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IMF 사태가 터진 1997년 말 회사를 나온 그는 형제와 함께 버섯생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첫 1년 동안은 단 한 송이의 버섯도 생산하지 못하였다. 그는 “상자 재배를 통해 느타리버섯을 생산하려고 했지만, 배양과정에서 오염이 심했는지 전혀 자라지 않았다”며 “매일 밥상머리에서 형제끼리 네 탓만 하는 날이 반복됐다”고 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버섯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근 버섯농장을 찾아다니며 1년여를 버섯재배 연구에 매달렸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 병재배 버섯 ‘맛타리’를 개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그는 곧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맛타리 버섯 납품을 시작했다. 고객들에게 직접 버섯의 특징을 설명하고 요리법까지 소개했다. 2~4kg 대용량 포장뿐이었던 버섯을 200~300g 소포장으로 출시해 큰 반응을 얻었다. 40여 개에 이르는 느타리버섯의 한 품종인 맛타리의 브랜드화에 성공한 것이다. 현재 맛타리와 같은 병재배 느타리버섯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가 정하는 것이 먼저... 끝을 보고 시작하라’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며 산다. 하지만 계획의 방향은 저마다 모두 다르다. 어떤 계획이 가장 이상적일까? 이러한 질문에 임성혁 동문은 “끝을 보고 시작하라”고 말한다. 임성혁 동문은 꿈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의 끝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연봉이 얼마인지, 안정적이지는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이 100년을 살아가기 위해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이다. 임성혁 동문은 이 꿈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농생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선택했다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서울대 농생대 학생들이 다수 분포해 있는 ‘청아랑영농조합법인’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에 능숙한 열정적인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아랑영농조합법인



LED병재배 느타리버섯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기 최기탁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식품생명공학전공에서 식품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최영진 교수!

최영진 교수는 학·석사 학위를 연세대학교에서 취득하고, 박사 학위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받았으며 이후 동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2006년도부터 우리 대학 식품생명공학전공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영진 교수는 평소 과학 교양도서를 자주 읽는데, 과학 교양도서는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과학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최영진 교수
(식품생명공학전공)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최영진 교수가 추천한 책은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이다. 빌 브라이슨은 미국 출생으로 영국에서 「더 타임스」, 「인디펜던트」 신문사에서 여행 작가 겸 기자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돌아와 수많은 여행기를 쓴 작가이다. 그는 어린 시절에 표와 알 수 없는 도표로 가득한 과학교과서에 크게 실망하였고, 그 무렵부터 빅뱅에서 인류 문명의 출현에 이르는 지구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인류가 어떻게 알아냈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쓰고자 3년간 세계 여러 과학자들을 만나 이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하늘에 광활하게 펼쳐진, 그리고 펼쳐지고 있는 우주, 반짝이는 별, 붉게 빛나는 태양과 그 이름에 속하는 태양계의 아홉 가지 행성, 그리고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탄생과 배경, 생명의 창조와 멸망, 아주 위험하고도 불안정한 우주에서 아주 우연하고 질서 있는 법칙으로 탄생한 지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총 6부 30장으로 구성된 책의 여러 이야기는 천문학, 물리학, 지질학, 생물학, 기상학, 고고학 등의 수많은 학자들의 삶과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으며, 위대한 논문들은 천재성과 노력, 그리고 집단의 갈등과 과학자들의 시기·질투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탄생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일반인도 과학의 모든 것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영진 교수는 “다른 과학도서의 흔한 수식이나 그림, 도표 없이도 이해하기가 쉬울뿐더러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한번 책을 잡으면 좀처럼 놓기 힘들 정도로 흥미진진합니다. 과학이론뿐만 아니라 과학자의 인간적인 면모나 과학 발전과정 중의 여러 에피소드를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책 읽는 재미를 더해주죠.”라며 이 책만의 장점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그는 이 책을 통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겪었던 고난과 시행착오를 통해 과학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직도 불가해한 자연현상이 얼마나 많은 지,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겸허함과 도전의식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통해 이공계 학생들은 근대 과학사를 개괄적으로 알 수 있어 융합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고, 인문계 학생들은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는 철학의 속성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때문에 그는 「거의 모든 것의 역사」처럼 중고교 교과서를 쉽고 흥미 있게 쓴다면, 중고교 시절에 과학의 이론적 어려움으로 인해 흥미를 잃고 과학자의 길을 포기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영진 교수에게 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부탁하였다. “과학에 대한 탐구는 끊임없는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꼭 실패는 아니라고 봅니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만들 때 1000번을 실험해서 실패한 뒤 사람들에게 말할 길, ‘나는 1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구를 만들 수 없는 지 1000가지 방법을 성공적으로 발견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 말처럼 과학을 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더불어 끈기도 중요하죠. 또한 논어 웅야 편에 나오는 ‘知之子不如好之子(지지자불여호지자)요, 好之子不如樂之子(호지자불여낙지자)니라’ 는 유명한 말처럼 과학도 즐기는 자세로 노력하다보면, 과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자연히 따라 올 것입니다.”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추천해 준 최영진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추천한 주인공은 원예과학전공에서 식물발달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허진희 교수. 그에게 추천 이유를 묻자 “허진희 교수님은 학부 시절에 샌드페블즈 활동을 하셨어요. 예술가적 기질이 있으시죠. 다음 호에는 그런 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허진희 교수의 추천 도서는 다음 호에 공개!

<중앙일보 2012년 9월 21일 금요일 B14면>

되찾은 '종자 주권' 지키려면 강병철 교수(식물생산과학부)

한국 종자 산업을 이끌어 오던 대표 기업인 흥농종묘·중앙종묘·서울종묘는 1990년대 말 다국적기업인 몬산토·신젠타에 인수 합병됐다. 필자가 대학원생이던 시절이다. 당시에 나왔던 의견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우리 종자 주권이 무너졌다는 우려였다. 다른 하나는 다국적기업이 한국을 종자 개발의 허브로 삼아 투자를 늘리면 우리 종자 산업 발전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 긍정적 전망이었다.

약 15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통적 육종 기술에만 의지하고 있던 우리나라 육종가가 분자 육종 기술과 종자 가공 기술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된 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 종자 기업이 그동안 개발해 온 배추·고추·무 등 우리 고유의 육종 소재와 기술이 고스란히 다국적기업의 손으로 넘어갔다. 특히 우리가 쌓아 온 도제식 육종가 훈련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와 다음 세대의 종자 산업을 이끌 차세대 육종가의 기근을 초래했다.

국내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 세계 종자 산업은 크게 바뀌었다.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식량 공급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생명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종자 개발을 통해 종자시장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였다. 대형화·글로벌화는 더욱 진전됐다. 96년 16%에 불과하던 10대 종자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010년에는 73%로 확대됐다. 몬산토의 1년 연구개발비는 우리나라 전체 종자산업 분야 연구비의 20배 수준이다.

이제 우리도 이런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이를 해내지 못하면 종자·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됐다. 정부도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수출전략 종자 개발을 위해 10년간 4911억 원을 투자하는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 김제에는 2015년 민간육종연구단지인 '시드 밸리(Seed Valley)'가 조성된다. 이런 시점에 국내 종자기업인 동부팜한농이 몬산토코리아를 인수했다는 발표는 희소식이다. 이는 종자 주권 회복에 비견할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기도 하다. 동부팜한농이 글로벌 종자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점도 있다. 다른 농업연구와 마찬가지로 종자 개발은 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대신 좋은 품종을 개발하면 매우 장기간 수익을 얻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수한 종자 개발의 성패는 육종가의 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많은 인재를 발굴·훈련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우수 육종가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동부팜한농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 이번 인수가 우리나라 전체 종자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강병철 교수
(식물생산과학부)

<농민신문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011면>

해외곡물 확보 전략 김한호 교수(농경제사회학부)

식량안보는 모든 국가가 우선순위의 최상위에 두는 정책이다. 다만 국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를 뿐이다. 식량 생산능력이 있고 소득수준이 뒷받침 되면 일반적으로 평상시 가계 식량안보 유지에 중점을 둔다. 미국이 대표적이며 최근 북유럽의 고소득 국가들이 이 유형을 쫓는다. 지역통합과 함께 지역적 식량안보 확충으로 개별 국가의 식량안보 취약성을 보완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대표적이다.

또 원천적으로 농업기반이 취약하지만 경제발전으로 구매력이 충분한 국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량 조달능력을 키워 이를 통합된 공급사슬로 체계화함으로써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하는 유형이 있다. 바로 일본이다. 마지막으로 위험관리 능력을 키워 곡물시장 불안정으로부터 자국의 식량공급 안정을 도모하는 유형이 있는데 최근 멕시코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여건상 일본과 멕시코 유형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일본식 접근은 여러 나라에서 식량을 생산해 자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판매하는 일관된 공급사슬 구축을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시도하고 있는 현물 확보사업, 즉 해외 농업개발과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이 합쳐진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고도의 경험을 통한 학습과 장기간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일본 농협과 민간기업도 지금의 세계적 조달·물류·판매망을 갖추는 데 반세기가 걸렸다.

또한 일본이 생산지 현물 구매부터 시작하여 차츰 저장 및 물류 관련 현지 시설 투자로 나간 시기는 세계 곡물시장의 불황기로서 비교적 자산 구입이 용이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우리가 자산 구입을 시도하는 지금은 세계 곡물시장 호황기로서 자산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어 진입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그후에도 정착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현물 확보 방식은 세계적으로 현물이 부족한 비상시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서 여기에는 우리나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가령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통상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가야 할 과제 있다. 이처럼 현물확보 전략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단기적 상황은 물량 확보 불안보다 가격 불안정이 더 현안이다. 따라서 중단기적 식량안보 전략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시장을 이용한 곡물실수요자의 위험관리 능력 배양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손질하는 대부분의 곡물은 곡물메이저라는 중간상을 통해 간접구매하고 있다. 중간상으로서 메이저는 위험을 절대로 부담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생산자 혹은 실수요자에게 프리미엄 형태로 전가하게 돼 있다. 이 위험을 곡물 실수요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일본이 반세기 전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위험관리체계 구축도 쉬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민간 기업에 대한 현물확보 유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의 곡물 실수요 기업들에 대한 위험관리 유인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전문가 등을 활용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다양한 위험관리 유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한호 교수
(농경제사회학부)

농생대 기금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12. 01. 01. ~ 2012. 12. 04.까지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명단입니다.

기금출연 (2012. 01. 01. ~ 2012. 12. 04.)		누적금액 : 12,259,287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오리엔탈드림 3,000,000
강석권 교수 유족 10,000,000	윤원혜(김유용교수 부인) 1,000,000	㈜프로셀코리아 3,000,000
익명 10,000,000	이경국(농학, 78) 1,000,000	㈜누보 3,000,000
정구민(동물생명공학, 82) 20,000,000	최고농업정책과정 15기 1,000,000	㈜한성T&I 4,000,000
제10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36,880,000	김경욱(농공학, 68) 1,000,000	유원예코사이언스㈜ 5,000,000
한인규(상록상 시상사업, 축산학, 52) 100,000,000	㈜숨에서 1,500,000	㈜에이피디 5,000,000
한인규(목운정학사업, 축산학, 52) 100,000,000	㈜씨에스텍 2,000,000	제11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5,000,000
	오평환장학금 적립금 2,921,200	
	㈜넥스캡 3,000,000	10만원 이상
	서울신문사 3,000,000	㈜지지에바이오 200,000
	정진화(농경제학 교수) 3,000,000	에스엠에이엔지(니어링) 499,560
	㈜녹색식물연구소 3,000,000	
	㈜에이티랩 3,000,000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기금출연 (2000. 01. 01 ~ 2011. 12. 31)		누적금액 : 4,962,000,000원
(유)PPG코리아	고 이은웅 교수 유족 (72)농경제학	김상곤 농업교육
(재)목운문화재단 한인규 (52)축산학	고종열 축산학(박사) (87)	김상돈 (44)축산학
(재)유연정학회	고희중 (76)농학	김석구 (55)임학
(주)내츄로바이오텍	광주MBC	김성배 (85)농생물학
(주)생명의나무	구자환 (81)농학	김성주 (63)농업교육
(주)서울신문사	권숙환 학부모	김성일 (76)임학
(주)신농	권정혁 (60)농학	김수민 (03)환경재료과학
(주)케이티엔에프	권철 (59)축산학	김영권 농학
(주)하이스	김경옥 (68)농공학	김영도 (68)축산학
53학번 동기회	김관수 (82)농경제학	김영배 (85)축산학
59학번 동기회(재미회원)	김광호 (68)식품공학	김영복 (72)농공학
69학번 동기회	김국형 (83)농생물학	김영상 (58)농학
69학번 여성동기회	김규옥 학부모	김영성 (59)농경제학
70학번 동기회	김근숙 농화학	김영호 (73)농생물학
71학번 동기회	김기선 (74)원예학	김유용 (83)축산학
81학번 원예동문동기회	김동암 (52)축산학	김유용, 윤원희
가나바이오텍(주)	김동윤 (48)농경제학	김민식 (64)농학
간접연구경비회계지원금	김동태 (62)농경제학	김장원 서울대직원
강미정 농가정학	김명중 (70)임산공학	김정환 (75)농화학
강병철 (86)원예학	김무열 (64)농공학	김종무 (59)농학
강예원 학부모	김민균 (82)농화학	김진도 (81)농업교육
강창희 (66)농경제학	김병동 (62)농학	김진우 (06)산림과학부
		김진의 (59)축산학
		김태수 (66)임학
		김현중 (83)임산공학
		김호탁 (58)농경제학
		김희발 (86)동물자원과학
		나승일 (81)농산업교육
		노희영 (76)농화학
		농생대 기획실
		농생대 동창회
		농생대 수목원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농학과 동기회
		농협중앙회
		농화학 동문회
		도운회 (61)농화학
		동학특수산업(주)
		류관희 (63)농공학
		류덕희 (주)경동제약 대표이사
		류순호 (55)농화학
		무명 (55)농공학
		문성훈 (86)식품공학
		문지애 (77)식품공학
		문태화 (71)식품공학
		바이오사이드테크
		박관화 (62)농화학
		박기주 (69)농업교육
		박낙희 (83)농업교육
		박사우 (65)농생물학
		박원규 (60)농공학
		박은우 (73)농생물학
		박정현 (64)농업교육
		박종국 (57)농화학
		박창서 (61)농경제학
		박창호 (58)임학
		박필선 (90)산림자원학
		박효근 (59)농학
		반성환 (50)농경제학
		백남천 (81)농학
		백종현 (79)임산가공학
		부경생 (60)농생물학
		브이에프티
		서문원 (74)농학

기금출연 (2000. 01. 01 ~ 2011. 12. 31)

서민영 서울대직원	윤용인 (57)농가정학	이재진 (65)농학	정희석 (60)임학	㈜한성T&I
서병륜 (69)농공학	윤원희 김유용교수부인	이전제 (70)임산가공학	제연호 (86)천연섬유학	㈜해남테크
서울신문사	윤익건설	이정식 (69)원예학	조도현 서울대직원	㈜현우그린
서진호 식품생명공학 교수	윤해정 (90)임산공학	이정훈 父(00)식품생산과학부	조민성 父(97)농경제학사회학부	㈜FC
서학수 (65)농학	윤희진 (62)축산학	이중영 (70)임산가공학	조성인 (77)농공학	㈜SK텔레콤
성호경 학부모	이건호 (67)농경제학	이준호 (74)농생물학	조재영 (39)농학	직업과정CEO 과정
손정익 (75)농공학	이광희 (75)농학	이중용 (77)농공학	조중수 (66)잠사학	진정우 학부모
식물분자유전육종센터	이기훈 (91)천연섬유	이철영 한백과학 대표	㈜고추와육종	차상석 연세대
신재익 (60)농화학	이내수 (58)농경제학	이철우 (61)농경제학	㈜내추로바이오텍	채수군 (54)잠사학
신젠타코리아(주)	이돈구 (65)임학	이춘만 (73)임학	㈜녹색식품연구소	채영함 (60)농학
신한풍 (59)농학	이동근 (82)조경학	이충환 (09)동물생명공학	㈜누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현호 (79)원예학	이동찬 (82)농공학	이태호 (74)농경제학	㈜밀투벨런스	최상호 (78)식품공학
신희순 (69)잠사학	이두이 (66)농학	이필우 (53)임학	㈜바이오토마	최연홍 (56)잠사학
심용섭 (70)농업교육	이득용 (52)농경제학	이한강 (69)임학	㈜베스트텍코리아	최윤재 (73)축산학
셀테크	이명훈 (69)농경제학	이현수 (60)농화학	㈜블루인바이로먼트엔텍	최인규 (80)임산공학
안동만 조경학 교수	이무하 (67)축산학	이형주 (66)농화학	㈜비르엔마이크로	최정우 父(00)생물자원공학부
안동환 (86)농경제학	이미경 (74)농화학	이홍 (70)농화학	㈜비비씨엔에프	최진용 (84)농공학
안성규 (76)임학	이미순 (56)농학	이희석 (57)농생물학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최홍림 (71)농공학
안원영 (55)임학	이병근 (67)농경제학	이희재 (78)원예학	㈜생명과기술	투플러스코스팜(주)
양태진 (85)원예학	이병목 (64)농생물학	일본동문회	㈜센소메트릭스	패션푸드(주)
양호석 (57)농화학	이병일 (57)원예학	임경순 (54)축산학	㈜숨에서	프로챌코리아
엄기덕 (46)농화학	이삼취 (66)농화학	임승진 조경학 교수	㈜신택	피타코이드(주)
에스엠에이엔지니어링(주)	이상기 (79)농화학	임용재 (67)농경제학	㈜싸이퍼인텔리전스	하종규 (75)축산학
에스워드(주)	이상영 (65)잠사학	임용택 (54)농경제학	㈜아데나	한국마사회
연은실	이상우 (89)임학	임정목 동물생명공학 교수	㈜에스씨아이	한국전파기자국(주)
염동해 (74)조경학	이상훈 (88)조경학	장우상 (63)잠사학	㈜에스씨에프	한상윤 (72)농업교육
오기봉 (78)농화학	이석하 (78)농학	장진성 (78)임학	㈜에스이오	한재용 (80)축산학
오평환장학금 적립금	이성우 지역정보 교수	장창순 (53)농경제학	㈜에이티랩	한준호 (64)임학
온경용 (79)원예학	이수정 (65)농가정학	장태평	㈜에이피디	현익승 (61)잠사학
우리농장	이승구 (66)농화학	장학균 학부모	㈜에코엘리디라이트	현정오 (66)농생물학
우무일 (64)임학	이승환 (80)농생물학	장휴동 (59)농경제학	㈜에프엔피	현진호 (88)천연섬유학
우보명 (57)임학	이시희 (80)농생물학	재일동창생	㈜여러분의 천년초	홍상욱 (83)원예학
우석상 (83)임학	이은규 (77)농학	전창후 (83)원예학	㈜오리엔탈드림	홍인식 (79)원예학
원광엠에프디(주) (86)농화학	이완주 (63)잠사학	정구민 (84)축산학	㈜유원테크	홍종일 (80)축산학
원후식 (56)농생물학	이용창 父(99)생물자원공학부	정민섭 (59)임학	㈜이레벨	홍종혁 농경제학 석사 홍준표 조부
유상렬 (78)식품공학	이용환 (79)농생물학	정윤환 (56)임학	㈜이지코스	화인엔터프라
유상철 (64)축산학	이우신 (75)임학	정일영 (62)축산학	㈜장수로	환경지도자교육과정
유원에코사이언스(주)	이인모 (65)농경제학	정종훈 (77)농공학	㈜추비로	황인규 (76)농생물학
유한킴벌리	이인복 지역시스템공학 교수	정주상 (77)임학	㈜프로챌코리아	CALSP
윤계섭 (53)임학	이장희	정진구 (65)농공학	㈜하이스	KBS한국방송
윤여창 (74)임학	이재갑	정현석 (63)농화학	㈜한국애그로바이오	MBC문화방송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동문동정]

- ▶ **오탈광**(식품공학78)동문은 10월 30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원장에 임명되었다.
- ▶ **허경태**(임산공학81)동문은 10월 저서 '산림복지' (도서출판 수민)를 출간했다.
- ▶ **이남식**(농화학 78)동문은 12월 3일 계원예술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교수동정]

▶ **김의준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9월 29일 일본 기타규슈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지역학회에서 "Economic Contribution of Private Sector in Financing and Operation of Transportation Network" 주제로 기초논문을 발표하였다.



체로,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림원 회원의 추천과 함께 회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 **박은우 교수**(농생명공학부)는 한국식품병리학회 회장으로 해당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대 문화관에서 '세계화, 기후변화와 기술 융합: 식물 병리학의 도전과 기회' 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서진호 교수**(농생명공학부)는 9월 16일에서 21일까지 대구 EXPO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생명공학대회(15th International Biotechnology Symposium and Exhibition, IBS 2012)에 참가하여 "Construction of synthetic isozyme systems in Saccharomyces cerevisiae for efficient meabolism of xylose"란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다.



이후, 10월 24일에서 26일까지 일본 Kobe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된 The 90th Anniversary Meeting of the Society for Biotechnology, Jap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OTECHNOLOGY FOR GREEN GROWTH' 에 참석하여 "Applications of microbial factory technology to production of bioethanol from cellulosic biomass"란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다.

▶ **노재선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11월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쌀전업농 종합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재선 교수는 "AMS한도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직 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발표하였다.



▶ **하중규 교수**(농생명공학부)와 **이상렬, 최상호, 김유용 교수**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15th SNU-HU Joint Symposium에 참석하였다. 한일 공동심포지엄에 하중규 교수는 공동의장으로 참석하였으며, 참석 교수들은 'Virulence gene regulation in Salmonella' (이상렬 교수), 'Quorum sensing-disrupting molecules to control virulence of Vibrio vulnificus, a fulminating foodborne pathogen' (최상호 교수), 'Animal industry and food safety strategies as influenced by FMD outbreak in Korea' (김유용 교수)라는 주제로 각각 논문 발표를 하였다.



▶ **최영진 교수**(농생명공학부)는 11월 14일 한국식품과학회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SPC그룹이 후원하는 '제1회 베이커리 테크놀로지 국제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영진 교수는 휴면생지 냉동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석하 교수**(식품생산과학부)는 11월 22일 서울 웨스튼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제2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분야 학술단



[동창회 소식]



▶ **농생대 동창회 동문기업 탐방**
 농생대 동창회는 10월 25일 전북 익산에 있는 동양물산기업과 (주)하림을 탐방하였다. 이 날 탐방에는 정운환 동창회장을 비롯한 37명의 동문이 참석하였다. 동양물산기업 윤여두(농공 67) 부회장과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전시장에 전시되어있는 제품 설명을 듣고 농기계 자동생산라인을 돌아보았다. 이어 익산시 망성면에 있는 (주)하림에 도착하여 이문용(축산 69) 사장의 인사말과 회사 소개를 들었다. 이후 제품이 생산되는 공정을 관람하고 닭이 농가에서 들어와 도축되는 과정부터 신선하고 안전하게 처리되는 공정을 살펴보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농생대 동문들의 일하는 모습과 동문기업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소식을 통해 알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대외협력·홍보팀) (T. 880-4538, calsw@snuc.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7709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평창그린바이오 T.880-4537/2897 F.873-0125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과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과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림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1)293-0313 F.(031)293-0314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3~5 F.884-0182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융합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체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세균의사소통학연구단 T.880-4686 F.873-2317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육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395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0 F.886-4868
 창업보육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학실 T.880-4619
 식품공장 T.880-4824